스타들 세월호 3주기 추모 이어져

英밴드 '콜드플레이' 내한공연

'픽스 유' 애도곡으로 선사

박해진 등 진도 팽목항 방문

송혜교·솔비 추모그림 눈길

15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첫 내한공연을 펼친 영국의 록밴드 콜드플레이는 "한국의 슬픔에 공감하며 부르겠다"며 '픽스 유'(Fix you)를 선사해 세월호 3주기를 애도했다. 아래는 배우 박해진, 가수 솔비, 이승환(왼쪽부터).

내한한 영국 밴드 콜드플레이부터 배우 박해진 등 국내 스타들까지 세월호 3주기를 추모하는 대열에 동참했다.

지난 15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첫 내한공연을 연 콜드플레이는 "한국의 슬픔에 공감하며 부르겠다"며 '픽스 유'(Fix you)를 선사해 세월호 3주기를 애도했다.

상실을 노래한 이 곡은 보컬 크리스 마틴이 전처인 할리우드 배우 귀네스 팰트로가 아버지를 잃고 슬퍼하자 위로하기 위해 만든 곡으로 알려져 있다.

서정적인 선율이 울려 퍼지자 4만5000명이 운집한 객석 전체가 자일로밴드(발광 팔찌)가 뿜어낸 노란 빛으로 물들어 장관을 연출했다.

콜드플레이의 멤버 윌 챔피언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내일은 특별한 날이기도 하고 '픽스 유'는 공연마다 즐겨 연주하는 노래인데 우리도 한국의 슬픔을 공감하며 연주하게 될 것 같다"며 "노래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특히 '픽스 유'(Fix You)는 상실을 노래하기 때문에 슬픔이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었다.

또 보컬 크리스 마틴도 "'픽스 유'를 부를 때마다 하늘을 보게 되는데 수많은 별 가운데 하나에 꽂혀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하게 된다"며 "마음이 정화되는 경험을 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뷰에서 윌 챔피언은 탄핵 정국에서 콜드플레이의 대표곡 '비바 라 비다'(Viva La Vida)가 마치 '탄핵 찬가'처럼 거리에서 울려 퍼졌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 노래는 힘이 있는 사람이 권좌에서 내려오는 혁명에 대한 노래"라며 "전 세계에서 이 노래가 불리는 게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또 "이 노래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힘든 상황과 공포가 있어도 삶을 껴안고 나가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스타들도 진도 팽목항을 찾아 추모하거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세월호의 아픔을 잊지 말자는 글을 올렸다.

배우 박해진은 16일 팽목항을 직접 찾아 희생자를 위한 묵념을 하고 추모 엽서를 썼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애도를 뜻하는 노란 팔찌를 줄곧 착용한 그는 이날도 소속사 직원들과 조용히 이곳을 찾았으나 시민들에게 목격되며 방문 사실이 알려졌다.

가수 솔비는 이날 SNS에 직접 그린 추모 그림을 들고 찍은 사진을 올렸다.

그는 "3년 전 그날의 충격은 저를 비롯한 많은 분의 삶과 생각들을 바꾼듯합니다"라며 "그래서 그 날을 기억하고, 아픔을 나누고 싶기에 매년 세월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월호는 정치적 도구가 아닙니다. 상처를 표현하고 고통을 기록하는 것. 우리 모두의 상처이고, 아픔의 기록입니다"라고 적었다.

가수 이승환도 SNS에 "3년이란 지난한 시간이 흘렀는데 세월호의 진실은 아직도 인양되지 못했습니다"라며 "머지않은 훗날 진실이 밝혀지고 관련자들이 처벌받아 기꺼이 온전한 그리움으로 그분들의 넋을 어루만져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추모했다.

배우 윤균상은 노란 리본 사진을 게재하며 "#세월호 아프다고 외면하지 않길, 아프다고 잊지 않길, 미안합니다"라고 적었다.

또 배우 송혜교는 '0416'이라고 적힌 노란 종이배 그림을, 가수 겸 배우 수지는 바다 위 하늘에 떠 있는 노란 리본 사진을 올렸다.

이 밖에도 이시영, 이광수, 이동휘, 김새론 등의 배우들과 걸스데이 민아, 빅스 레오, AOA 지민 등의 아이돌 가수들이 노란 리본 사진을 올리거나 "잊지 않겠습니다"란 글로 슬픔을 함께했다. /연합뉴스

나훈아가 돌아온다

11년만에 신곡발표

"조용한 출발 원해"

가수 나훈아(70·사진)가 칩거를 끝내고 11년 만에 컴백한다.

14일 공연계에 따르면 나훈아는 11월 3~5일 서울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을 시작으로 24~26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 12월 15~17일 대구 엑스코 컨벤션홀 등 3개 지역 공연을 확정 지었다.

나훈아는 새롭게 꾸린 자신의 회사에서 공연을 직접 운영하며 신곡을 담은 새음반도 발매할 예정이다. 그러나 언론과 방송 활동은 일절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공연 관계자는 "올해는 3개 도시 투어만 확정했고 내년에 다른 지역 공연도 할 것 같다"며 "공연기획사들이 다른 지역 공연을 잡으려고 벌써부터 난리다. 하지만 나훈아 씨 회사에서 역시 직접 할듯하다"고 말했다.

활동 재개는 지난달 그가 수십 년 지기 음악 동료들과 만나면서 예견됐다.

당시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작곡가는 "나훈아 씨가 쉬는 동안 곡을 많이 써뒀고 연내 본인이 다시 노래할 의지를 갖고 있다. 신곡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방송사에서 특집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조용히 떠났으니 다시 출발할 때도 조용히 노래하고 싶어했다"고 말했다.

나훈아는 2006년 데뷔 40주년 공연을 끝으로 칩거하며 가요계 지인들과도 교류하지 않았다.

2007년 3월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공연을 취소하고 자신의 기획사 아라기획까지 문을 닫은 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투병설, 일본 폭력조직 관련설, 신체훼손설 등에 휘말렸다. 괴소문과 맞물려 잠행이 '잠적'으로 바뀌자 나훈아는 2008년 1월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루머에 대해 해명한 뒤 다시 칩거 생활을 했다.

당시 그는 기자회견에서 "가수는 꿈을 파는 사람이다. 꿈을 팔려면 꿈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꿈을 잃어버렸다. 다시 꿈을 찾게 되는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른다"라며 활동 중단을 시사했다. 그로 인해 뇌경색 투병설, 해외 여행설, 일본 공연설 등 미확인 '설'은 계속 나돌았다.

급기야 2011년 부인 정모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6월 나훈아는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 건강 이상설을 불식시켰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정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소송 5년 만에 이혼이 성립됐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언제나 봄날〉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SBS아침연속극 〈아임 쏘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월화 드라마 〈역적 : 백성을 훔친 도적〉(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최태성 이윤석의 역사기행 그곳 (재)	00 월화드라마 〈완벽한 아내〉 (재)		00 2017 한국민영방송대상 우수상 수상작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 뉴스 2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2017 한국민영방송대상 우수상 수상작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05 KBS네트워크특선 휴먼터치 인 55 명인 (재)	00 살림하는 남자들 (재)	10 키즈 사이언스6 (재) 55 파워배틀 와치카 (재)	25 지식 통조림 30 위대한 유산(재) 55 닥터 365
2	45 콘서트 필 (재)	00 KBS 뉴스타임 10 사람과 사람들(재)	25 똑?똑! 키즈스쿨 55 내친구 마카다	00 뉴스브리핑
3	35 공감다큐, 사람 55 감성툰 고맙습니다 (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유치원	25 일일 특별기획 드라마 〈황금주머니〉 (재)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00 MBC 뉴스M	00 2017 한국민영방송대상 대상 수상작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 특공대 (재)	00 MBC이브닝 뉴스	00 SBS 오 뉴스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30 생방송 TV블로그 꼼지락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드라마 〈 다시, 첫사랑 〉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 55 MBC 뉴스데스크	15 닥터 365 20 SBS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25 빛나라 은수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일일 특별기획 드라마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10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완벽한 아내〉	00 월화 드라마 〈역적 : 백성을 훔친 도적〉	00 월화드라마 〈귓속말 〉
11	00 KBS 뉴스라인 40 해외걸작드라마 〈리셀 웨폰〉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테마기행 길	10 초인가족 2017
12	30 101세의 프러포즈 (재)	35 비바 K리그	10 MBC 뉴스 24 3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45 스포츠특선 MLB 핫토크	20 나이트라인 50 전국 TOP 10 가요쇼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빙하의 대여정 아이슬란드〉
06:00 한국기행
06:20 세계테마기행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 마루의 어드벤처
07:30 로보카 폴리
07:45 출동! 슈퍼윙스
08:00 딩동댕 유치원 1~2
08:30 꼬마버스 타요
08:45 부릉!부릉! 브루미즈
09:00 방귀대장 뽕뽕이
09: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쥬
09:40 또 하나의 우주, 길(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명란 두부탕과 명란 두부조림 〉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산다
12:40 세상의 모든 법칙(재)
12:45 리얼극장-행복(재)
13:40 까칠남녀
14:30 정글에서 살아남
15:00 요술 상자
15:05 내 친구 아서
15:20 우주탐험가 젯
15:35 모피와 친구들
15:45 코코몽 3
16:15 방귀대장 뽕뽕이(재)
16:30 두다다쿵(재)
16:45 딩동댕 유치원 1~2(재)
17:15 엄마 까투리
17:30 꼬마버스 타요(재)
17:45 호기심나라 오키도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4
19: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9:30 EBS 뉴스
19:55 다문화 고부 열전
20:50 세계테마기행 〈광야의 축복 이집트 요르단 - 신이 선택한 땅 시나이반도〉
21:30 한국기행 〈오지라도 괜찮아 - 게으른 농부의 만찬〉
21:50 EBS 다큐 프라임 〈생과 사의 강 브라마푸트라 - 신의 물방울, 강을 이루다〉
22:45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재)
23:35 까칠남녀
24:25 세상의 모든 법칙
24:30 세계의 드라마 〈다운튼 애비〉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17일(음 3월 21일 甲戌)

子 48년생 쾌도난마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60년생 효율성의 관점에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72년생 묵은 것을 버려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는 법이다. 84년생 현재 힘들더라도 지속하고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46, 22

丑 49년생 실행할 만한 명분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지만 추진동력이 약하다. 61년생 해결될 것이니 조바심을 버리고 잠자코 있어라. 73년생 운로는 좋으니 언행만 주의하면 된다. 85년생 무리한 다면 부작용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42, 72

寅 50년생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조금만 달리한다면 새로움이 보일 것이다. 62년생 보류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74년생 완전무결함을 추구하다가 봉패할 수 있다. 86년생 상당한 변화를 일으킬만한 영향력이 있다. 행운의 숫자 : 37, 15

卯 51년생 간헐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무시할만한 상황도 아니다. 63년생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충분히 가져야겠다. 75년생 점점 한기가 사라지면서 따뜻해지리라. 87년생 답답할 수도 있지만 앞만 보고 진행하면 무난하다. 행운의 숫자 : 02, 71

辰 52년생 거품을 제거하고 실속을 챙겨야 할 때다. 64년생 별 탈은 없지만 적극적인 활동이 아쉽다. 76년생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88년생 특징을 잘 파악한다면 형국을 주도할 수 있게 된다. 행운의 숫자 : 43, 89

巳 53년생 성심으로써 물리칠 수 없는 곤란은 거의 없다. 65년생 편견을 가진다면 선입감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다. 77년생 막연히 기다리고 있지만 말고 미리 나아가 맞이하여라. 89년생 지금이라도 반전시키는 것이 백번 낫다. 행운의 숫자 : 13, 12

午 42년생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리라. 54년생 구체적이어야 한다. 66년생 멀어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 가깝다. 78년생 계획을 잘 세워야 진행하는 과정이 흔들리지 않는다. 90년생 기준과 원칙을 준수한다면 위기를 모면하리라. 행운의 숫자 : 33, 52

未 43년생 입체적인 고찰이 효과적이다. 55년생 안전을 추구하고 완벽함을 기하라. 67년생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한다. 79년생 기가 막혀서 아예 말도 나오지 않는 판도가 펼쳐 질 것이다. 91년생 진행 중인 것에만 신경 씀이 생산적이다. 행운의 숫자 : 82, 54

申 44년생 이번 고비만 잘 넘기고 나면 행복이 깃들 것이다. 56년생 간접 경험의 효과가 매우 크다. 68년생 주변의 정황에 휘둘리지 말고 냉철하게 고찰함이 필요한 때다. 80년생 반복되다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30, 66

酉 45년생 참신해야 차별화시킬 수 있는 법이다. 57년생 마지막 난관일 수도 있으니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어야겠다. 69년생 상대의 의중을 왜곡시켜서 받아들이면 아니 된다. 81년생 피치 못해서 변경해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행운의 숫자 : 11, 47

戌 46년생 세분화시켜 낱낱이 살펴보고 대응해야 할 단계다. 58년생 아무리 힘들더라도 당일에 마무리하는 것이 이롭다. 70년생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야 할 때이니라. 82년생 반드시 처음과 끝이 같아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63, 67

亥 47년생 선택을 잘못하면 입장이 역전될 수도 있다. 59년생 활기찬 하루가 될 것이니 용기백배 하자. 71년생 불완전하다면 백 번이고 다시 하는 것이 당연하다. 83년생 내용이 알차야겠지만 시기를 맞추는 것도 요한다. 행운의 숫자 : 76, 73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